

비재현적 경관 인식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

범영우*

A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Value of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 Perception in Geography Education

Yeongwoo Beo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맥락에서 학교지리에서의 경관 인식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재현적 경관 인식의 지리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재현지리학이 학교 지리에서의 지리적 경관 이해에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비재현지리학은 경관을 재현된 결과물로 인식하는 신문화지리학의 일부 이론을 비판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기된 공간적 전환과 함께 경관에 대한 관계적 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비재현적 경관 인식의 방향성은 경관을 둘러싼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접근을 해체하는 미시적 서사 접근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화지리학과 비재현지리학에서 논의하는 경관에 대한 접근방식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경관 사례를 통해 현재 학교 지리에서 나타나는 경관 인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재현지리학의 관점을 지리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으로 지리적 경관의 미시 서사적 접근,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의 성찰, 다감각적인 경관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지리에서 경관 인식을 위한 비재현지리학의 교육적 함의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지리교육, 신문화지리학, 비재현지리학, 학교지리, 경관 인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landscape perception in school geography can have in the context of representational and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 and to discuss the meaning and value of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 perception in geography education.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as a means of comprehending geographic landscapes in school geography is also discusse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has developed around relational thinking about landscape, along with the spatial turn that has been raised since the mid-1990s, criticizing some theories of new cultural geography that recognizes landscape as a reproduced outcome. The direction of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 perception that this study focuses on is a microscopic narrative approach that dismantles the dichotomous approach of the subject and object surrounding the landscape. In this paper, the approach and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discussed in new cultural geography an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are analyzed. Moreover, through the analysis of examples of landscapes from high school geography textbooks,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recognition in current school geography are also examined. On top of this, the micro-narrative approach of geographical landscape, the reflection of human-centered dichotomous thinking, and the importance of multi-sensory perception of landscape are inspected, as a strategy to apply the perspective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in geography educ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s and present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for landscape perception in school geography.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New cultural geography,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School geography, Landscape perception

*빛고을고등학교 교사(Teacher, Bitgoeul High School, geoisours@korea.kr)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서 자연 및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지리적 경관을 둘러싼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류세(anthropocene)에서의 인간은 지구환경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자연에 대한 우월한 위치를 상상한 채, 과학기술을 추종하며 사회경제시스템을 조직해왔다(Crutzen, 2006). 오늘날 ‘인간-사회’와 ‘비인간-자연’의 병렬적 배치는 사실상 근대적인 이분법의 논리로 간주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turn)속에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지리적 경관이 순수하게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일 것이라는 공간적 상상으로는 ‘COVID-19’의 사례와 같이 특정 팬데믹(pandemic)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조차도 온전히 진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COVID-19’는 단순히 자연발생적,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인간 및 비인간 요소들이 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얽혀있던 복합적 경관이었다.

지리적 경관에 있어서의 자연은 인간의 주체의식에 의해 길들여지는 수동적인 타자의 위치에 있었고 인간의 편익은 기계론적 자연관을 앞세워 자연파괴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지구적 환경위기는 오히려 인간이 구축한 지식과 담론에 의해 모든 경관이 구성, 유지된다는 인간중심적 관점에 대한 성찰 혹은 반성을 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환경위기의 발생 원인이 세계의 각 요소를 주체와 객체로 분리시켰던 데카르트적 사유로 일부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성(materiality)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자연 경관에 대한 인식이 각종 기후위기 앞에서 여전히 인간 예외주의에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 지리적 경관에 대한 사고방식에도 물질적 불균형의 회복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Simpson, 2017; 2020). 여기서 논의하는 물질적 균형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영역들이 다른 물질과의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얽힘 속에서 행위주체성(agency)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arad, 2003).

그동안의 학교 교육 현장은 특정 주체인 인간의 행위 주체성을 전제로 각종 지리적 경관 사례와 교수학습을 제시해왔다(김병연·조철기, 2020). 하지만 최근 인류세에 함축된 논의에서 보았듯이 특정 주체를 중심으로 재

현된 경관은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포섭하기 어렵다. 이에 지리학에서는 물질성에 기반을 둔 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비재현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이 논의되었다. 비재현지리학의 출발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현된 결과물로 해석되는 경관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시작된다. 비재현지리학은 단일하고 명확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여러 이론의 묶음 혹은 궤적의 측면에서 비재현성을 논의한다(Thrift, 2008; Cadman, 2009). 다만 Lorimer(2005)에 따르면 비재현지리학은 지리적 경관 상에서의 거시적인 재현체계, 인간중심의 존재론적 이분법, 시각 중심적 재현이라는 기존 인간-자연간의 관계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성에 주목했다. 제시된 세 가지 경향성은 문화지리분야에서 경관을 비활성화된 특정 프레임에 고정된 채 시각적으로 재현된 실제로 간주하는 재현주의 경관에 대한 일부 비판과 함께 제기됐다. 비재현지리학은 경관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 방식을 지적하면서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재현주의 경관이론의 보완 내지는 대안의 영역으로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Lorimer, 2005; Cadman, 2009; Keiller, 2009; 진중현, 2013; 송원섭, 2015; 2019; 오정준, 2015; 김지나, 2020).

학교지리에서의 경관 교육은 학생들이 경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함으로써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거시담론으로서 실증주의 지리학 패러다임에서는 경관을 외부의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외재적 실체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질서와 규칙의 배열이 가능한 물리적 실체로서 경관은 하나의 동일한 고유의 문화에 의해 생산된 영역으로 정의되었고 학교지리에서의 경관 인식의 방향성 또한 이에 천착되어 경관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없었다. 학교 지리에서 논하는 지식은 고도로 전문화됨과 동시에 개별 개념의 틀 안에서 분절적으로 경계 짓는 방식으로 다뤄졌고,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누적되어 왔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리적 경관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과 인간 및 비인간의 다양한 복수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관이 포섭하는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폐쇄적, 한정적 정의를 가정하는 실증주의적 접근이나 재현적 도식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학교 지리의 교수·학습에

서는 지리적 경관 인식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문제시 되지 않았고 여러 지리적 경관들은 수동적이고 등질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리적 경관은 미시적 세계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현주의 경관의 한계점을 비재현적 경관 인식의 특징과 함께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비재현지리학이 줄 수 있는 경관 인식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화지리학과 비재현지리학에서 논의하는 경관에 대한 접근방식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 현재 학교 지리에서 나타나는 경관인식의 특징을 분석한다. 더불어 지리적 경관의 미시서사적 접근, 인간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의 성찰, 다감각적인 경관 인식의 중요성을 지리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학교지리에서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을 논의하고 사례를 통해 적용한 실증적 연구이며, 이는 경관 인식을 위한 비재현적 탐색을 통해 지리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경관의 비재현적 전환

21세기에 들어 시각이 가지는 특권적 지위의 박탈을 주장하며 재현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했다(Thrift, 2000; Whatmore, 2006). 비재현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엄밀한 시작은 Thrift가 쓴 일련의 논문과 책 등에서 제기된(Thrift, 1996; 1997; 1999; 2000; 2008)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수렴된다(Simpson, 2020). Thrift(2008)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휴머니즘의 철학적 사유의 계보 속에서 재현과 인간 의식 이전의 순간을 비재현이라는 이론적 틀과 행위적 실천을 통해 추적하고자 하였다. Thrift는 인간 중심의 의식과 관념, 시선에 우위를 둔 근대적 주체 대신 인간 너머의 물질성과의 관계에 대한 모색을 하며 역동과 순간의 마주침 속에서 구현되는 세계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전반에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흐름

속에서 경관에 대한 관계적 사유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김숙진, 2016). 비재현지리학은 시각을 절대적 위로 두면서 경관을 최종 결과물로 파악하는 재현주의 경관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된 현상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의 흐름을 형성한다. 진중헌(2013)은 현상학적 전환이라는 렌즈를 통한 비재현지리학의 대안적 접근이 재현주의 지리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성찰을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재현주의 경관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재현지리학은 주체와 대상의 명백한 구분을 반대하며 경관을 고정된 재현물 대신 인간 행동의 과정 혹은 과정 그 자체에 내재된 실천으로 간주하였다. 그간 신문화지리학은 상징적, 문화적 의미에 퇴적되어 물질적인 경관 연구에 소홀하였고, 많은 감각 중 시각을 절대시하며 재현된 결과물만을 분석해왔다. 이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는 인간의 질서가 부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경관(Ingold, 2000)과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어 정태적으로 고정된 이분법적 경관(Cadman, 2009)으로의 재현 방식이 있다. Thrift(2004)는 문화지리학이 길을 상실하고 활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이미 구성된 경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석과 번역이 신문화지리학의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재현주의 경관 이론은 경관의 의미체계에 대한 거센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된다. 비재현지리학은 신문화지리학의 이론적 지형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기존의 인간-자연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Ingold(2000)는 경관을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의미와 실체,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내부자와 외부자, 문화와 자연 등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현주의 경관이 데카르트적 인식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Lorimer(2005)는 인간-자연과의 관계를 인간 중심적 사고의 극복(more-than-human), 텍스트로 경관을 이해하는 관점의 극복(more-than-textual), 다양한 감각으로 세계를 마주하는 관점(multi-sensual worlds) 등으로 제시하며 기존 재현주의가 인간, 텍스트, 시각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비재현지리학 이전의 경관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미체계를 중심으로 이미지, 기호, 상징 등의 재현양식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독해하였다(Jackson, 1989).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담론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에 재현된 이념과 담론,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면서 경관은 객체로서, 인간은 주체로서

의 존재론적 지위의 인정을 가정하는 이분법에 머물러 있게 된다(송원섭, 2015). Barad(2003)는 Butler(2009)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과 특징을 내세우면서 담론적으로 구성된 Foucault(2005)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며 행위성에 중심을 둔 사유로의 전환¹⁾을 촉구한다. 이는 Foucault의 이론에 '신체'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페미니즘 비판과 마주치면서, 나아가 인간 존재의 배경으로 놓여있던 (자연)환경, 타자, 비인간, 물질, 소통, 마주침 등을 신체와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주체 개념이 탈거된 '몸'들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하는 개별성 및 특수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삼라만상의 물질성으로 확장되어 수많은 마주침을 생산한다. 나아가 경관 속에서 조우되는 관계, 역동성, 에너지, 실천 등은 비재현지리학의 새로운 사유 단위가 되었다. 다만 비재현지리학은 실제 이론의 성격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단일한 이론체제보다는 복수형으로의 인식이 전제된다(Thrift, 2000).

복수형, 다원성 안에서 비재현지리학은 포스트구조주의, 현상학, 페미니즘, 실용주의, 각종 사회 이론 등이 다양한 농도로 혼합되어 있다. 비재현지리학은 원칙에 맞는 고정되고 단단한 원리를 갖는 단일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체현된(embodied) 지리학적 사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Simpson, 2020). 이 과정은 경관에서 안정적인 특정 표상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ands'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다(Cadman, 2009:456). Thrift(2008)는 문화지리학내의 지배적인 재현 사고방식에 도전하면서 인지구조 이전에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실천(practice)과 수행(performance)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특히 비재현지리학은 지나친 응시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체현적 지식, 기존 지리학의 시각주의에 대한 비평 등을 통해 재현주의 경관이 지니는 이론과 실천, 사고와 행위 사이의 이분법적 틀을 넘는 인식론적 함의를 도모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재현지리학이 재현의 중요성을 거부한다거나 완전한 부정 속에서 이론을 구축해나가진 않는다는 점이다. Thrift가 사건의 잠재적인 흐름을 증폭시키는 실천이론에 관심을 둔 것이지 결코 '비(non)재현'이라는 용어가 반(反)재현을 의미하거나 재현 자체를 절단시켜 부정한 것은 아니다(Dewsbury et al., 2002). Lorimer(2005)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현을 넘어선' 혹은 '재현 이상'의 의미인 'more-than-representational'²⁾으로 용어의 의미가 강조된

다. 비재현지리학에서는 경관이 가변적으로 구성된 '과정'으로서(Rose, 2002) 또는 '사건'(Massey, 2006)으로 이해되어 활성화된다. 비재현지리학은 경관을 단순히 인간 행동을 위해 비 활성화된 배경 혹은 담론의 재현 방식으로 그리지 않고 '실천(Practice)'에 관한 그 자체이며 구체화되고 물질적인 영역으로 바라본다.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론적 무게감은 과거 인간주의지리학에서 의미하는 주체의 의미와 사뭇 다르다(Simpson, 2017). 비재현지리학에서는 인간을 유의미한 단순적 주체로 보는 대신 복수형의 개체로 두어 경관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관계가 인간이라는 주체에 우선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비재현지리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체현된 경험을 중시하는 인간주의 지리학을 그대로 계승했다기보다 현상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포스트 현상학적 관점으로 지평을 옮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Simpson, 2020:139). 포스트 현상학적 지리는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한 가정에서 벗어나 주체가 어떻게 관계 안에서 또는 관계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비인간의 모든 행위주체성을 지닌 물질을 담보한다. 따라서 신체를 존중하는 포스트 현상학적 접근은 기존의 인체에 대한 재현주의적, 구성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인간에 의한 주도적인 경관 구성보다는 신체와 경관의 동시 구성과 병렬적 배치를 기준으로 신체-경관 관계의 역동성을 더욱 강조한다(Ingold, 2000).

2. 탈구조주의적 경관 인식

비재현지리학은 재현에 방점을 두는 신문화지리학을 비평하며 선행적으로 정의 내려진 인식론에 구속받지 않는 탈구조주의적 시도이다(Simpson, 2020). 이 이론은 연구자가 소위 '신의 눈'을 가진 엘리트적 입장을 벗어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³⁾, 수행성 연구(performativity studies)⁴⁾, 인체와 감정(the body & emotion) 등의 비재현적 관점을 통해 경관의 물질성을 파악하고 수행성과 인간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이재열, 2015). 특히 물질적 공간과 주체 사이의 복잡한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재현주의 경관 연구의 한계가 드러났고(홍금수, 2009) 동시에

여전히 경관을 선형적으로 인식하고 추상적인 범주화가 지속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관과 그 경관이 구성되는 미시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인체를 존중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차용한 비재현지리학은 재현주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개념인 실천(practice) 및 수행(performance)으로서의 경관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고정적 재현 경관의 정태적 의미에서 경관의 역동적 생성과 과정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문화지리학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한 시각연구에서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Nash, 2000; Thrift, 2004; Cadman, 2009; Knudsen and Waade, 2010; Urry and Larsen, 2011). 따라서 연구의 주요 프레임도 시각적 분석의 대상이었던 경관의 의미와 개념에서 주체의 실천과 수행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실천과 수행에 대한 연구는 경관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경관이 어떻게 지배담론으로 고착화되고, 때로는 저항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지상현 등, 2018).

탈구조주의적 성격의 비재현적 경관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감응(Affect, 感應)⁵⁾이다(Ruddick, 2010). 감응은 Spinoza의 Affectus⁶⁾의 개념을 Deleuze의 사유를 기초로 발전된 개념으로 Pile(2010)에 의하면 신체(body)의 감각적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선(pre-)비(non-)의식적, 초(trans)개인적인 것 또는 신체 속에서, 동시에 신체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유평하는 느낌 그 이전의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다. 감응은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하면서 언어적, 시각적 포착이 어려운 구현불가능성과 맞닿아있어 그 자체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재현해내기 어려운 존재로 설정된다(Pile, 2010:8-9). 이는 공간적으로 의식과 인지의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인간과 인간의 반응이 넘어서는 곳에 위치한다. 더불어 감응은 사물간의 관계의 산물 혹은 하나의 몸이 다른 몸에 맞는 순간 관통하는 것을 감응의 순간이라 표현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개념을 탈피한다. Deleuze는 비재현적인 영역에 위치한 감응으로서의 affect가 의식에 영향을 미친 그 양태를 affection이라고 강조하면서 Spinoza의 논의를 연장하여 affection은 affect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Deleuze, 1968, 김상환 역, 2004). 이는 Spinoza의 내용을 치환한 것인데, 태양이 밀랍을 녹이고 진흙을 굳히면 녹아버린 밀랍과 이미 굳어버린 진흙의 순간적인 양태가 affection이고 밀랍과 진흙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태양의 '변이'는 affect를 지칭한다(Deleuze *et al.*, 2005, 김상환 등 역, 2014). 정리하면 affect는 연속적인 변이를 강조하는 비재현성에, affection은 순간적 양태이자 범주화된 인식의 산물인 재현성에 대응된다. Thrift(2004)는 사회 현상 이면 속에 특정한 추상적 구조의 존재를 가정하는 학문적 관습을 문제시하며 이미지로서의 '재현'보다 감응(affect), 실천(practice), 수행(performance)에 의해 경관이 물질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체의 물질적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감응을 강조함으로써 사고의 전체 범위와 접촉하려는 비재현지리학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Thrift, 2008:12). 결국 의식의 영향을 받은 실재(actuality)의 영역으로 포착되는 경관의 재현성과 의식 너머의 비가시적 과정(process) 혹은 잠재(virtuality)의 영역인 경관의 비재현성이 마주치게 되면서 지리적 경관은 실재와 과정이라는 의미론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송원섭, 2019:246).

이와 같이 비재현지리학은 감응, 실천, 수행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의 흐름(onflow)에 주목한다(Thrift, 2008). 생기 및 생성 철학에 기반을 둔 비재현지리학은 경험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세계는 이론화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거대하여 인간의 의식은 지각(perception)의 좁은 창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의식 이전의 순간에 관심을 둔다(Thrift, 2006:6). 비재현지리학은 일상적인 삶이 사회이론의 분석가들에 의해 각색된 각종 질서, 메커니즘, 구조, 절차 등에 의해 가려지는 대신(Dewsbury *et al.*, 2002:437) 체화된(embodied) 일상생활의 비(non-)인지적, 선(pre-)인지적 순간으로 풍부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Thrift, 2006:7). 실천으로서의 경관은 경관자체의 물질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경관과 맺어지는 감응의 관계 혹은 육체적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생성된다. 특정 장소에서 발산되는 경험은 언어 및 시각에서 출발하는 텍스트적 경관보다 공유된 경험(shared experiences), 평범한 일상(everyday routine), 일시적이고 스치는 만남(fleeting encounter), 체화된 움직임(embodied movement), 전-인지적 계기(precognitive trigger), 실천적 기술(practical skills), 정서적인 강도(affective intensities), 평범한 교류 및 상호작용(unexceptional interactions), 감각적 기질(sensuous disposition) 등의 육체적인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orimer, 2005:84).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경관 상에 동반되기도 한다.

Thrift는 ‘수행’과 ‘수행성’을 비재현적 경관에 대한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보았다(Thrift, 2004; 진중헌, 2013). 그는 페미니스트 학자인 Butler(1993)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정교화하여 비재현적 경관을 사유하고자 했다. 경관의 비재현적 관점의 핵심은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다각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현상이다. 수행으로서의 경관은 실천이 가지는 진행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경관의 의미가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김지나, 2020). 실천과 수행을 통해 외부의 생활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이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 때의 경관은 인간-주변 환경의 모든 구성요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재현적 관점의 견지가 필요하다. 오정준(2015)은 수행이 다양한 정체성의 장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피력한다. 예시로 든 석촌 호수는 단순히 관광객이 지리를 소비하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수행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경관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지리’가 탄생하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장소라고 제안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 속 걷기’라는 육체적, 공간적 수행을 통한 박물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이희상, 2013). 이 연구는 걷기라는 육체적 실천이 투여가 생산하는 담론과 가상공간의 재생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언급하고 박물관 공간이 물질적, 기호적, 서사적 공간을 넘어 수행적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간의 수행은 권력이 있는 공간에 저항과 비판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천과 수행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 행위, 과정 등이 일상 생활으로서의 경관을 때로는 유지하기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즉, 코드화된 수행

(coded performance)이 기존 경관의 담론의 문법을 유지 및 강화하기도 하며 법칙이 전복되기도 한다(Urry and Larsen, 2011). 결국 실천과 수행으로서의 경관은 재현주의 경관을 완전히 전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주의 경관과 공존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 인식에 할당된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재현으로서의 경관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은 상호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논해질 가능성이 있다. 송원섭(2015)은 재현의 중심을 둔 신문화지리학의 ‘의미체계로서의 문화(culture as meaning)’에서 비재현지리학의 ‘행위로서의 문화(culture as doing)’로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비재현지리학이 신문화지리학의 상징성과 전통 경관론의 물질성을 포섭하고 보완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를 종합하면 재현주의적 경관론과 비재현주의적 경관론은 완결적, 배타적 분리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이질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표 1).

III. 학교지리에서의 경관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의미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법(Krippendorff, 2018)을 활용했다. 이 방법은 저널리즘이나 교육 분야에서 주제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교육과정 분

표 1. 재현적 경관과 비재현적 경관의 구분

	재현적 경관 (representational landscape)	비재현적 경관 (non-representational landscape)
경관의 주안점	재현(representation)	감응(affect)
핵심 키워드	의미, 텍스트 (culture as meaning)	수행, 실천 (culture as doing)
경관 특징	결과, 실재(actuality)	과정, 잠재(virtuality)
감응(affect)의 양상	affection	affect
존재론적 구도 (경관-인간)	각각 독립된 존재 (이분법적 존재 전제)	주체와 대상 분리 반대 (이분법적 존재 철폐)
경관 범주	거시서사	미시서사
학문적 배경	신문화지리학	비재현지리학

출처 : 송원섭(2019), Simpson(2020)을 재구성.

야에서는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빈도가 높다. 본 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내용 구성과 핵심 개념의 포괄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의 오류(factual errors), 내용의 탈거(omission), 고정관념(stereotype), 왜곡(bias) 등의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지리교과서는 지리 교육과정의 공적산출물임과 동시에 교육과정 재구성의 분석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리교과서의 내용분석은 지리교사의 교수·학습 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리교사는 교육 현장의 미묘한 질적 변화와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을 가지고 교실 안팎에서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권정화, 2015). 더불어 학교지리에서의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경관해석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리교사를 경유하여 올바르게 분석되어 전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객관적 지식 위주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태도 측면의 정의적 영역의 이해가 요구되는 지리 내용영역은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 조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교지리에서 지리적 경관이 제시하는 정의적 영역의 학습 내용이 어떤 방향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세계지리 교과서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지리 4종에서 접근하는 8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의 일부 내용을 선정하여 세부 학습 내용을 분석했다.

2. 연구결과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공존과 평화의 세계’에서는 ‘오염물질의 국제적 이동’, ‘국제 난민’, ‘지역 분쟁’ 등의 학습요소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8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는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태도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지리에서 기술되고 있는 일부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태도나 책임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일원적이고 획일화된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책임과 같은 윤리적 태도, 해결책을 실천하는 자세 등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 환경적 책임은 변화를 위한 이성적 방법론으로서 반드시 재현된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Winter, 2017). 환경 문제가 특정 윤리적 실천자세를 갖도록 선형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을 넘어 동일성의 굴레에서 해방된 개인적 의식과 이질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재현의 기술적 방법론을 경유하여 특정 지리적 경관을 과도하게 대상화하여 사유했던 일부 단선적인 접근 방식은 텍스트를 넘어서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관을 다양하게 숙고하여 인식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12세지08-02]에서 제시하는 ‘지구적 환경문제’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사례가 포함된다. 플라스틱은 ‘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학습 요소와 정합성이 높기 때문

표 2. 2015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 일부 내용

구분	구성 내용
단원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
학습요소	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 국제 난민, 지역 분쟁
영역의 도입	세계는 지역적 협력과 지구촌의 평화 및 공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
성취기준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성취기준해설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별 경제 블록의 형성, 지구 온난화 및 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 등의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나 협약, 세계유산의 지정과 관리, 국제 난민의 실태와 인도적 지원, 다양한 지역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비롯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들을 학습하고, 그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태도를 함양한다.

출처 : 교육부, 2015.

에 지리 교과서에 제시하는 대표적 물질로 등장한다. 플라스틱은 인류세 시대의 주요 환경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일상생활 속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머물다가 환경문제와 관련해 분리배출이 요구되는 쓰레기로 대상화된다(그림 1).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과 이질적 관계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백승한, 2021). 현재의 분리배출 시스템은 개인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되면서 엄청난 플라스틱 사용량에 비해 한없이 단선적인 플라스틱 정책의 이면을 보여준다. 플라스틱이 인류세, 환경문제라는 거대 담론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미시적 일상과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플라스틱을 해결해야 할 물질로서 쉽게 대상화하며 정작 플라스틱 주변의 다양한 관계 맺기의 양식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환경주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초점화해야 되는 문제는 자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특징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플라스틱의 마모, 손실로 인해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가지는 복합적 관계성이다. 플라스틱을 한번 쓰고 버리는 행위를 보고 개인의 이기심, 무심함으로 바라보며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인간을 상정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버리는 사회시스템, 원료로서의 석유, 플라스틱과 관련된 정책, 제도적 실천 등 플라스틱 주변의 비인간 행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음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박경은, 2021). 문제 인식과 해결이라는 단선적인 방법으로는 플라스틱 경관을 제한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

다. 인간이 주목하지 못한 플라스틱의 미시적 특징은 단순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금 당장 처리해야만 하는 환경 문제로 재현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 맺음의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플라스틱이 단순히 대상화하기 어려운 물질인 이유는 물질과 자연 간의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합성물질이라는 점과 선후관계,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조합 방식이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백승한, 2021:8). 학생들은 플라스틱을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대상화하기보다는 미시적 렌즈를 통해 역동적인 삶의 형식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플라스틱이라는 최종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만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소각 등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생들 삶 깊숙이 파고든 플라스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인류세의 기술화석으로서 각종 지리적 경관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준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지니는 유연성은 천연자원인 석유와 인공 물질로서의 플라스틱이 얼핏 이질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은 자연에 이분법적으로 대치되는 인공의 영역에 있지만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분법적 구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능성의 물질로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은 특정 프레임으로 쉽게 명사화되거나 대상화되지 않고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일상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하게 예측되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관점의 대상화가 플



출처 : (a) 천재교과서(신정엽 등, 2019); (b) 미래엔(박철웅 등, 2019).

그림 1. 일상생활의 환경보호 실천

라스틱 논의를 한정시키고 고정된 담론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경관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관계성으로 얽혀진 비결정적인 공간이다. 특히 환경 담론과 결부되어 제시되는 지리적 주제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둔 단선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다양한 행위성이 존재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통해 미시적 관계성으로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

[12세기08-03]에서 제시하는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위한 지구촌의 노력’은 민족(인종)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분쟁과 평화 협력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라는 정의적 영역과 연결된다.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지역 분쟁, 국제 난민 등의 문제는 분쟁과 평화라는 양면의 상황을 병렬적으로 다룸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상호 문화 이해와 공존을 추구하고 세계지리의 본원적인 교과 목표와 역량을 기르기 위한 좋은 구조적 설정이라 판단된다. 다만 각종 분쟁과 평화에 대한 지리적 경관은 단편적 재현보다는 정서적 교류 및 실천과 같은 가치·태도의 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인지적 정보를 넘어서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국제연합 난민기구(UNHC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가 6,56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약 2,000만 명은 국제 난민이며, 약 4,000만 명은 국내 실향민으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 고국의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국가별로 보면 6년째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5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250만 명, 남수단 140만 명 순이었다(신정엽 등, 2019:206).

세계 평화지수나 세계의 분쟁 지역의 위치와 난민 발생 수에 대해 텍스트나 지도를 통해 평화 및 분쟁의 정량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본포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는 교수학습 자료는 지리적으로 분명 의미가 있다(그림 2). 하지만 분쟁과 평화라는 주제는 해당 현상이 일어나는 지리적 경관과 마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정서적 관계의 형성이 선행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리 교과서의 구성상 수치적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재현된 지도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몸으로 느껴지는 비좁음, 화약 냄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도망자의 생존을 갈

구하는 심장박동과 떨림, 갈 곳 없는 죄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 지나친 굶주림으로 인해 나오는 헛구역질 등은 단순히 시각 위주의 재현으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경관의 모습들이다.

분쟁과 평화는 지식·이해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의 영역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리적 내용 요소이다. 세계시민으로서 분쟁과 평화를 다가서는 자세가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고 인식하는 학생으로서, 관조적인 제 3자의 타자로서 접근한다면 관련된 지리 경관의 인식이 편협해질 수 있다. 지리 교과서의 분쟁과 평화 경관은 세계시민으로서 감정이입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입체적인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 가능한 대상 혹은 ‘나와는 무관한 정량적, 물리적 경관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관찰, 분석 대상으로 한정짓거나 분리하지 않고 ‘나’를 포함하여 재현으로 포착되지 않는 감응적 순간들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백승한, 2021:13). 분쟁, 전쟁 등의 지리적 이슈를 당면한 문제라고 파악했을 시, 그 문제가 위치하는 경관을 벗어나 객관적, 절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외부는 존재할 수 없다. 학생과 경관이 하나의 뒤섞임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재현된 경관에 주로 사용되는 감각은 시각이기 때문에 지리 교과서 내의 각종 사진과 텍스트의 제시에 있어서 사실의 오류, 고정관념, 왜곡, 탈거 등의 비판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Krippendorff, 1980:109-119). 특히 세계의 다양한 경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은 해당 경관을 통해 물리적 공간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리적 경관에는 단순히 경관을 구성한 인간과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관을 둘러싼 날씨, 시간, 향기, 온도 등의 비인간적 요소들로 인해 형성되는 경험의 측면이 존재한다. 세계지리수업에서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역사교훈적인 내용을 위한 전쟁 박물관의 사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와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가 있다. 사례 지역은 인종 학살 및 고통의 현장이면서 인류에 행해진 극악한 범죄가 발생한 경관이다. 각 기념물의 외관은 시각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경관의 모습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텍스트와 사진으로는 학습대상인 역사적 재난의 장소와 학습자인 학생의 사이가 단선적이고 인지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면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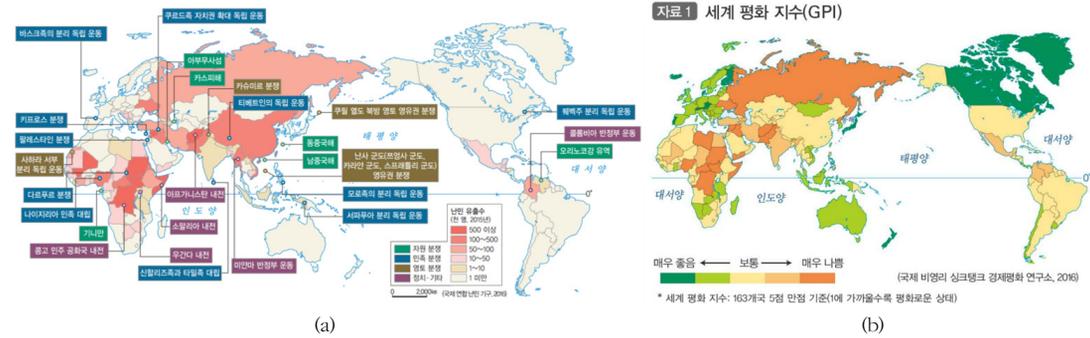


그림 2. 세계 분쟁지역과 세계 평화 지수(GPI)

정서적 측면의 공감과 실천적 자세를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학생들은 전쟁 및 분쟁의 경관을 관조적 자세로 조망하게 되고, 해당 경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남겨진 채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비재현적 인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쟁 및 분쟁 경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과 학습대상 간의 정서적 괴리감은 시각 위주의 물리적 경관보다는 경관에 얽혀있는 실세계의 맥락성과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 불안정성, 위험 등으로 간접적이지만 다감각적 경험을 통해 극복될 필요성이 있다. 다감각적 경험과 미시성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관 인식은 경관과 인간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이분법적 배치를 성찰하고 학습자와 학습대상이 흡착된 다층적 경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IV. 논의 : 비재현지리학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가치

1. 지리적 경관의 미시 서사적 접근

학교지리에서의 지리적 경관은 학생과 동떨어진 대상으로 놓여 하나의 지배적 정체성을 부여받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질적 요소와의 관계에서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다. 실증주의 지리학 패러다임에서는 경관을 양적 분석이 가능한 물질로 바라보면서 외부에 던져진 객관적 실재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지리적 경관은 고정되고 안정된 질서로 배열된 물리적 실체로서의 관찰과 응시의 대상이었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는 주체적 의미의 창을 가진 인간이 경관 그 자체를

주관적 의미부여와 해석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경관, 도덕적인 경관으로 정의내림에 따라 경관 내부와 외부로 각각 영토화 함으로써 실존적 내부성(Relph, 1976)을 생산했다. 따라서 인간주의 지리학은 경관의 영토화를 통해 내부와 외부,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게 되면서 경관의 본질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되었고 그에 따라 외부자를 비진정성을 가진 타자로, 외부는 비장소로 규정되었다. 신문화지리학의 의미체계와 상징은 일종의 거시체계로서 경관과 인간사이의 미시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담지 못했다.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이 이데올로기, 담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의 전반적인 재현이라면 분명 경관 자체는 거시적 서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Thrift, 2008).

지금까지 신문화지리학에서 논의하는 재현으로서의 경관 연구는 담론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거시서사이며 경관과 인간 사이의 미시적 관계를 주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송원섭, 2015:314). 따라서 지리적 경관은 그 자체를 둘러싼 거시적 차원의 재현과는 별개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미시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시적 관계의 구성에 있어 비재현지리학은 단순히 인간과 경관과의 배치뿐만 아니라 비인간과의 연결 방식에 주목한다. 여기서 비인간이 포섭하는 물질은 동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사물을 포함하는 수많은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의복,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및 기타 운송수단 등 인간의 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수많은 비인간 요소들은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인간이 경관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 양식의 범위를 넓힌다. 비인간 사물과의 상호작용과

공존으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지리적 경관 인식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즉, 신체가 세계와 접촉하며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능력,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미시적 차원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비재현지리학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신유물론의 관점을 받아들인 비재현지리학에서는 인간의 몸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간을 넘어선 것들과의 상호 연결을 강조한다(김환석, 2017). 인간이 아닌 물질과의 공진화(co-evaluation)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이를 순환하는 감응적 관계는 생물/무생물, 인간/동물, 인공/자연 등을 떠나 비인간 사물의 상태에 대한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주체성을 부여한다. 여기에서의 비인간 행위성은 사회적 세계를 생산 및 재현하는 능력으로서의 행위성이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존재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재현지리학은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에 대해 행위주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관계가 평평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평성을 강조한다. 비재현지리학이 주는 함의점은 지리적 경관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의 구분보다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혹은 객체)를 인정하고 비인간 행위자로 인해 구성되는 관계적 경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지리적 경관과 인간은 단순한 재현체계가 아니라 늘 복수로 존재하여 의미와 더불어 실천으로, 텍스트와 더불어 수행으로, 끊임없이 변이하는 과정의 한 중심에 존재한다. 따라서 경관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과 인간, 경관과 물질, 경관과 경관 등 경관을 둘러싼 모든 물질들에 대한 행위주체성을 인정하고 물질성을 교차하고 가로지르는 관계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2.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의 성찰

학교지리 안에서의 경관 인식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의 탐색에 주목해왔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등의 이원론적인 구분은 지리적 경관의 효율적인 인식과 질서를 명분삼아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고정되고 비활

성화된 틀 안에 배치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세한 사고 방식을 강화하고 시공간에 걸친 지리적 경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훼손한다.

그동안 경관의 재현을 지배해왔던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적 사유 측면에서 보면 아마존 원주민의 신념은 비합리적인 사유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 이분법과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21세기의 지리적 경관에서는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할 근거를 원주민의 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마존의 주민들은 무생물, 생물(동물, 식물), 날씨와 같은 기상 현상, 인공물질 등의 모든 비인간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동등한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들과 공존하고자 한다. 아마존 원주민 세계에서는 이기적 목적 때문에 비인간 존재를 죽이거나 파괴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보면 서구의 '근대화', '식민화란, 자신이 이 세계의 보편적 진리와 지식을 담지한다고 내세우면서 비서구의 토착적 지식과 실재를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정복한 행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을 포함한 이분법적 사고는 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벗어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을 동등한 행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 비인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도덕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학교지리에서 학생들이 수많은 지리적 경관을 마주하면서 학습을 시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비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너머의 관점에 기초를 둔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가며 공동으로 경관을 구성해가고 있다는 실천적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 안에서는 지리적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소개하며 특정 행위자 중심으로 구성된 경관을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글쓰기나 사진 독해를 통해 인간중심적 경관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지리의 열대기후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내용 요소인 사파리 여행은 친환경적인 생태여행의 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시각적 재현이 투사된 곳으로서 인간중심적 경관의 조성 사례로 분석해볼 수 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재현 경관에 갇혀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해 있었던 비인간 행위자인 동물 주체성은 최근 들어 동물과 공존하는 도덕 경관으로의 관점과 환경적 윤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Matless, 1994). 지리

교육 안에서 표현되는 지리적 경관 구성에 있어서 동물 또한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지리에서의 지리적 경관은 인간, 비인간의 이분법을 넘어 자연생태계 안에 각자가 중요한 행위자 혹은 주체로서의 위치성을 담보해야 한다. 인간 이외의 모든 비인간 행위자를 단순 물질로 규정하고 수동적으로 위치시켰던 학교 지리에서의 경관은 경관 네트워크 안에서의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과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이 요구된다. 경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개방적, 일시적, 우발적인 혼성체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동식물, 바이러스, 사물 등은 인간중심적인 경관 속에서 늘 배제되어 있었던 주체들이다. 특정한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한 행위주체성을 가진 물질성들에 대한 관계를 편견과 차별 없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기존 경관의 인식을 더욱 풍요롭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감각적 경관 인식의 중요성

지리적 경관을 1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수단은 시각적 재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것은 신문화지리학이 논의했던 시각을 중심으로 재현된 경관이 1990년대부터 문화지리 경관연구의 이론적 지형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다. 비재현지리학 관점에서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관의 다양성과 경관 내에 존재하는 물질적 관계의 복잡한 얽힘은 지리적 경관이 시각적 재현이라는 렌즈를 넘어 보다 역동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음을 반증한다. 인간-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3가지 차원의 방향성(Lorimer, 2005) 중 다양한 감각을 바탕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관점(multi-sensual worlds)은 결국 시각적 재현을 넘어서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감각적 경험은 지리 경관 학습에 있어 인지적 영역 이외에도 정의적 영역의 역량 및 소양을 기르는데 주효하다(김민성·김종근, 2021). 질적 접근으로서 경관의 다감각적 인식과 표현은 경관의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욕망이 교차되는 측면에서 경관의 총체적인(holistic)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박철웅, 2014).

우리가 살아가는 지리적 경관은 다양한 미분화된 감응들,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경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의 감응들은 특정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의

원리에 따라 모두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경관의 새로운 경험과 감응의 양상은 그만큼 재현의 틀 안에서 모두 환원하기 어려운 역동성과 복잡성을 내재한다. 고유하고 일원화된 경관 특성과 그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는 경관의 다양한 형상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리적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해석을 넘어 다양한 관계적 감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감각적 존재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이 경관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 감응적 기제가 관통되면서 순간적으로 배치되고 조정되는 연속선 상에 있기 때문에 선형적 배치로 지리적 경관을 단순 규정하게 되면 경관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은폐된다. 개별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한 배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경관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 요소들이 조정, 조율, 경합되는 과정으로서의 경관 인식이 필요하다.

시각적 재현에 기반을 둔 지리 교과서는 특히 글로벌 차원의 각종 환경문제, 전쟁 및 분쟁 등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위험, 고통, 비극에 대한 가치가 내포된 경관에서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리 교과서 내 텍스트와 지도 등의 시각적 재현 방식이 주로 위험과 고통에 대한 지수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다보니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신과 상관없는 곳 혹은 학생들 너머에 존재하는 경관에 대한 학습이 인지적 수준의 지식에 머물게 되면서 학생들의 공감수준은 미흡해지고 동시에 학습 대상으로서의 지리적 경관과 학생간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증대된다. 한편으로는 학생과 분리된 저 너머에(out there) 있는 경관에 대한 인지적 학습 논리가 비재현적 경관 인식이라는 재현 이상의 사유를 소환한 측면이 제기된다. 결국 비재현지리학이 현 지리교육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순간, 움직임, 사건으로 구성된 경관과의 체화된 만남으로서 감응은 시각 위주의 경관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Wylie, 2005:236). 신체적 감응은 특정 장소에 대한 신체-경관에 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숲이 우거진 지역을 걸을 때 나타나는 나무의 얽혀짐과 빛의 출입, 축축한 냄새의 양치류와 진흙에 움푹 빠지는 신발 밑바닥의 감촉, 몸을 감싸는 적당한 습도는 경관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반드시 객관적인 시선이나 거시적인 인식이 아닐 수 있고 상황에 대한 반응, 다감각적인 수준에 의해 경험될 수 있다. 즉, 빛과 그림자의 밀도는

V. 결론

신체가 경관과 마주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식 속에서 감지되는 것이다. 시각 위주의 경관 인식만이 모든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은 Macpherson (2008; 2010)의 연구⁷⁾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녀의 연구에서 실명 또는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지리적 경관은 경관과 개인의 시각적 이해의 전통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형태로 체현된 촉각, 청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전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지팡이와 발바닥의 감촉, 날씨를 가늠게 하는 피부의 습도, 주변 도우미의 어조, 호수 주변의 향기 및 백색소음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경관인식이 시각적 차원을 넘어서서 가능한 점에 주목한다.

교과서 내에서의 경관과의 만남을 서술하려는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복수의 다양체로서 지리적 경관을 마주하는 답사는 지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다감각적 경험이자 지리적 실천의 핵심이다(박철웅, 2020). 또한 모빌리티 지리의 수단⁸⁾이자 답사의 방법적 활동인 걷기는 육체와 경관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다(김민성, 2022). 답사, 걷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실 밖에서 겪는 다양한 경관은 일상적이지만 오감이 전제된 비재현적 경험의 장이다. 학교지리에서의 다감각적 경관에 대한 경험과 감응적 기제라는 비재현적인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재현적인 방법인 글쓰기, 이미지, 그림 등으로 매개되어 드러날 필요성이 있다. 창의적인 내레이션 방식은 표현의 양식만을 지칭하진 않는다. 그동안 시각중심적인 재현의 본질 속에 은폐된 다양한 감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관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관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보다 경관에 대한 민족지학적, 내러티브적, 다각적인 설명은 신체-경관의 공진화에 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서 내용의 서술은 지리 수업에 다룰 수 있는 경관의 폭과 깊이의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조철기, 2011). 지리 교과서 내용상 서술은 논리적 구조에 기반을 둔 설명식의 텍스트 서술과 경관의 다각적인 표현과 비재현성을 내포하는 내러티브 서술 방식으로 상호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리 교과서 상의 내러티브 서술 방식의 도입은 지리적 상상력을 고양하고 다양한 맥락에서의 접근을 도와 경관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맥락에서 학교지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경관 인식의 문제점과 비재현지리학에서 추동하는 경관 인식의 지리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비재현적 경관인식이 지리적 경관의 이해에 어떤 함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교지리에서 주목해야 할 경관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 지리에서의 지리적 경관은 다른 경관과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연·인문적 성격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밝혀왔다. 학교지리에서의 지리적 경관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리적 경관이 본질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전제한다. 고유한 지역성, 장소감 등은 물리적 공간에 착근되어 존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이하고 관계맺는 되어가기의 존재인 것이다. 둘째, 다른 경관과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특정 경관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 경관을 물질들의 집합이라 보았을 때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성 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못할 수 있다. 경관은 인간과 땅, 문화와 자연의 얽힌 사이를 가로지르며 구체적이고 능동적 관계에서 개념화된다. 이러한 역동성은 경관을 외부 대상으로 여기는 정적인 물질성이 아닌 신체와 환경 사이에서 오는 일련의 실천적 관계로 구성된다. Wylie(2007)는 경관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경관이 가지는 고질적인 고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지리에서의 경관 교육이 존재론적으로 얽혀있는 탈인간적 관계와 그 관계가 가진 잠재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관 인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학교지리에서 추구하는 지리교육의 내용요소는 텍스트로 이해되는 경관, 인간중심적인 지리적 사고, 시각 중심의 경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들의 지리적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경관이 가지는 물리적, 심리적 범위를 포섭된 경계로부터 해방시키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경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착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역동적인 지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세계의 복잡성을 존중하는 혼종적인 경관으로서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⁹⁾를 구현하는 실천적 인식론이 필요하다.

학교지리에서의 학생들은 경관을 지리적 특정 현상으로 단순 추출되어 생산된 최종제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일종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경관의 지리적 개념의 개방성이 전제된다면 지리 경관의 인식 방향은 경관을 둘러싼 다양하고 관계적인 맥락과 시공간 스케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동적인 경관 학습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지리적 경관은 학교지리의 지식과 학생들의 일상이 분리된 현실에서 함께 되어가는 과정으로 지식과 실천의 통합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경관으로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관은 다층적이며 복잡한 흐름과 묶음으로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감응적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하여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관이 지니는 역동성과 혼성적 특성을 배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비재현지리학이 주는 지리적 사고는 지나친 재현주의적 사고로 이미 고정되어 있고 결정론적인 경관의 본질을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경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이 될 수 있다. 비재현지리학은 특정 단일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의 인간중심적 사유를 벗어나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사유를 소집하여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집합체에 가깝다. 경관은 그 자체로 복수적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성과 조우하며 체험을 통해 연결되고 인식된다. 비재현지리학이 주는 경관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도입은 경관 인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리적 경관이 가진 역동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리 교육은 공간적 상호 의존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환경과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에 대한 능력을 기르며 세계 공존 및 번영을 위한 안목을 키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공감하고 세계적 수준의 해결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관' 상에 생성되는 수많은 지리적 장면과 행위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결국 지리 교과목의 목적 중 하나는 공간적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학교 지리교육은 세상을 바라보는 상호완결적인 창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재현지리학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재현주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 비재현적 경관과의 차이점 등을 학교 지리

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였다. 나아가 경관의 인식 및 해석의 전체 집합은 재현주의 이론으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는 사실과 함께 재현과 비재현의 상보적 관계와 공존의 필요성을 지리교육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마지막 논의에서 제안한 비재현적 경관인식의 3가지 방향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실제 수업 설계와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현적 경관 인식을 보완할 수 있는 비재현적 경관 인식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Barad는 수행성(performativity)에 대한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의 관점에서 유품론적 설명을 하면서 물질성(materiality)을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 또는 단순한 것으로 위치시키는 경향에 도전하면서 물질에 대한 행위(주체)성(agency)을 제안하였다(Barad, 2003:827).
- 2) 'non-'이라는 단어가 비재현적 연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재현 그 이상의 의미'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다. '비재현'보다는 '재현 이상의', '재현을 넘어서는' 표현이 비재현적 이론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방향의 포괄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orimer, 2005:84).
- 3) ANT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계가 덜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사물의 새로운 분류'로 논의했다.
- 4) 정체성이 수행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Butler의 수행성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Butler, 1993). Butler(2002)는 본질주의적 정체성을 반박할 때 수행성의 개념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젠더 정체성은 남녀 간의 차이, 이성과 동성의 차이에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규범과 행동을 통해 체험이 되고(반복적 수행으로 구성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형성된다.
- 5) 'Affect'는 용어를 관통하는 내용과 의미 번역의 다원성으로 인해 정서(情緒), 정동(情動), 어펙트 등으로 각 연구자의 의미-표현의 일치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감응은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작동되

고 각인되는 차원의 힘이며, 통상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고 무의식-신체, 물질-신체, 물질-물질 사이의 가시적, 비가시적 흐름(flow)와 사건(event)로 존재한다(Pile, 2010). 정동(情動)은 일본어 상의 번역으로 인해 움직임이라는 뜻은 있지만 지리적 관점에서 지리적 경관과 신체 사이의 동적 양상의 세밀함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일상적 심적 상태도 서술가능한 정서(情緒)의 이중적 표현 양상을 짚어내기 어렵다. 삼라만상의 물질 및 신체 사이의 돌발적, 우연적 움직임과 유연한 흐름과 끊임없는 접속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의미로 감응(感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6) Spinoza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감응’에 속박 내지 예측되어 있기에 합리적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 칭했다. 인간의 전제 조건에 감응이 놓여 있고 감응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도 병행된다(Ruddick, 2010).
- 7) Macpherson은 ‘시각 장애인’의 안내자 역할을 했으며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 피크 디스트릭트(Peak District)을 방문하는 시각 장애인 보행그룹간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지역의 경관을 인식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Macpherson, 2008; 2010).
- 8) 심승희(2022)는 새로운 지리학의 주제로서 모빌리티 지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희생되는 시간의 전통적인 접근보다는 새로운 경험이 되는 긍정적 측면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제시했다. 걷기는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만, 이동, 정주, 육체 경험 등 다양한 과정이 내포되는 지리적 답사의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 9) Latour에 따르면 자연과 사회,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근대의 이분법적인 존재론은 인간을 최전선에 둔 사고로 인간 이외의 수많은 행위자들에 대한 존재를 은폐시킨 주범이라 지적한다. 근대적 이분법을 지양하는 비근대적 사유형태로서 모든 존재들이 객체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위자(소)들의 연결망으로서 사물정치 혹은 코스모폴리틱스를 제안한다(김환석, 2017:6). 코스모폴리틱스는 코스모스(cosmos)의 정치(politics)를 의미하고 여기서 코스모스는 주변의 실재(reality)를 구성하고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들을 포함하는 집합적 사회를 형성하는 존재들 모두를 가리키고 인간-

비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창조와 파괴의 수많은 결합들에 의한 정치에 연결된다. Latour가 제안한 비근대적 사유형태는 코스모폴리틱스를 구현하고자 한 일종의 실천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Harman, Morton 등 사변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를 객체지향존재론으로 발전시켜(Harman, 2018) 객체에 존재론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진보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권정화, 2015, 「지리교육학 강의노트」, 서울: 푸른길.
- 김민성·김종근, 2021, “탐구적, 다감각적 지리답사 전략 -부산지 영도를 사례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31(1), 56-74.
- 김민성, 2022,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의 심리지리학적 탐색과 시각화,” 한국지리학회지, 11(1), 1-14.
- 김병연·조철기, 2020, “사회·자연 이분법을 넘어선 도시 이해를 위한 ‘인간 너머의’ 지리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436-448.
- 김숙진, 2016, “이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 김지나, 2020, “관광객 진정성 경험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1), 87-100.
- 김환석, 2017, “코스모폴리틱스와 기술사회의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30(1), 1-18.
- 박철웅, 2014, “도시답사에서 다감각적 경험을 통한 질적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2), 65-79.
- 박철웅, 2020, “경관 ‘장소’, ‘이미지’로서의 무등산 읽기,” 한국지리학회지, 9(1), 67-89.
- 박철웅·조성호·강은희·이강준·홍철하·박병철·김지현·백승진·최재희,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파주: (주)미래엔
- 박경은, 2021, “플라스틱 탈·식민성,” 미학예술학연구, 63(2), 40-64.
- 백승한, 2021, “플라스틱 어머니즘: 인류세, 어셈블리지, 그리고 도시,” 미학예술학연구, 63(1), 6-39.
-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

- 환” 대한지리학회지, 50(3), 305-323.
- 송원섭, 2019,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 (遭遇):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4(2), 229-249.
-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천영·박철진,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파주: (주)천재교과서.
- 심승희, 2022, “새로운 지리학습 주제로서의 교통 및 모빌리티 지리의 가능성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11(1), 85-104.
- 오정준, 2015, “재현과 수행으로서의 관광객 사진: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2), 217-237.
- 이재열, 2015, “Symbolic urban architecture, controversy, and ordinary practices: A critical architectural geographic narrative of Nodulseom in Seoul,”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18(3), 171-182.
- 이희상, 2013, “도시 속 걷기와 도시 공간의 박물관화: 수행적 공간으로서 대구 근대골목투어” 대한지리학회지, 48(5), 728-749.
- 조철기, 2011, “지리 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49-65.
- 지상현·이진수·조현진·류제원·장한별, 2018, “냉전의 진열과 소망: DMZ 전망대를 통해 살펴본 냉전경관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53(5), 605-623.
- 진종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57-574.
- 최병천·유성종·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파주: (주)비상.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지, 21(1), 46-94.
- 황병삼·천중호·이준구·이해창·천재호·강재호,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파주: (주)금성교과서.
- Barad, K.,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28(3), 801-831.
- Butler, J., 1993, Critically queer,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1), 17-32.
- Butler, J., 2002, *Gender Trouble*, London: Routledge.
- Butler, J., 2009,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AIBR Revista de Antropología Iberoamericana*, 4(3), 1-13.
- Cadman, L., 2009, Non-Representational Theory/Non-Representational Geograph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456-463.
- Crutzen, P.J., 2006, The “Anthropocene”, in Ehlers, E. and Krafft, T., eds., *Earth System Science in the Anthropocene*, Berlin, Heidelberg: Springer, 13-18.
- Deleuze, G., 1968, *Difference of Repe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 Paolo, V.P., Lazzarato, M., and Jun, S., 2005, *Immaterial labor & multitude*, Italy: Verso(김상운·서창연·자율평·론본·역모임 역, 2014,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 Dewsbury, J., Harrison, P., Rose, M., and Wylie, J., 2002, Enacting Geographies, *Geoforum*, 4(33), 437-440.
- Foucault, M., 2005, *The Order of Things*, London: Routledge.
- Harman, G., 2018, *Object-Oriented Ontology: A new theory of everything*, UK: Penguin.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 Jackson, P., 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Unwin Hyman.
- Keiller, P., 2009, Landscape and cinematography, *Cultural Geographies*, 16(3), 409-414.
- Knudsen, B.T. and Waade, A.M., 2010, *Re-investing Authenticity: Tourism, Place and Emotions*, Bristol: Channel View Books.
- Krippendorff, K., 2018,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London: Sage.
- Lorimer, H., 2005, Cultural geography: the busyness of being ‘more-than-representation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83-94.
- Macpherson, H., 2008, “I don’t know why they call it the Lake District they might as well call it the rock district!” The workings of humour and laughter in research with members of visually impaired walking group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6), 1080-1095.

- Macpherson, H., 2010, Non-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body-landscape relations, *Geography Compass*, 4(1), 1-13.
- Massey, D., 2006, Landscape as provocation,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1(1), 33-48.
- Matless, D., 1994, Moral geography in Broadland, *Ecumene*, 1(2), 127-155.
- Nash, C., 2000, Performativity in practice: some recent work in 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4), 653-664.
-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1), 5-20.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ose, M., 2002, Landscape and labyrinths, *Geoforum*, 33(4), 455-467.
- Ruddick, S., 2010, The politics of affect: Spinoza in the work of Negri and Deleuze, *Theory, Culture & Society*, 27(4), 21-45.
- Simpson, P., 2017, Spacing the subject: Thinking subjectivity after non-representational theory, *Geography Compass*, 11(12), 65-73.
- Simpson, P., 2020, *Non-representational theory*, London: Routledge.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London: Sage.
- Thrift, N., 1997, The Still Point, in Pile, S. and Keith, M., 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London: Routledge.
- Thrift, N., 1999, Steps to an Ecology of Place, in Massey, D., Allen, J., and Sarre, P., eds., *Human Geography Today*, 220-243.
- Thrift, N., 2000, Afterword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2), 213-255.
- Thrift, N., 2004, Performance and performativity: A geography of unknown lands, in Duncan, J., Johnson, N.C., and Schein, R.H., 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Hoboken: John Wiley & Sons.
- Thrift, N., 2006, Re-inventing invention: new tendencies in capitalist commodification, *Economy and Society*, 35(2), 279-306.
- Thrift, N.,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London: Routledge.
- Urry, J. and Larsen, J., 2011, *The tourist gaze 3.0*, London: Sage.
-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4), 600-609.
- Winter, C., 2017, Curriculum policy reform in an era of technical accountability: 'fixing' curriculum, teachers and students in English school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9(1), 55-74.
- Wylie, J., 2005, A single day's walking: narrating self and landscape on the South West Coast Pat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2), 234-247.
- Wylie, J., 2007, *Landscape*, London: Routledge.
- 교신 : 범영우, 6108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33번길 16, 빛고을고등학교(이메일: geoisyours@korea.kr)
- Correspondence : Yeongwoo Beom, 61086, 16 Cheom-danyeonsin-ro 133beon-gil, Buk-gu, Gwangju, South Korea, Bitgoeul High School (Email: geoisyours@korea.kr)
- 투고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2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